주간 통일정세

2016-46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Ⅲ.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KINU 통일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우) 06578
전화 (02) 2023-8000 전송 (02) 2023-8209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Ⅰ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12	北 중앙통신 대표단, 뉴스통신사세계대회 참가(연합뉴스)
	11.13	北김정은, 연평도 북방 4㎞ 최전방 시찰…軍 "도발시 강력응징"(연합뉴스)
		"北, 홍수 피해 주택보다 경비초소 먼저 복구"(연합뉴스)
	11.14	北 노동당 중앙위, 수해복구 인력에 감사문(연합뉴스)
	11.15	北최선희, 베이징 도착…교도 "제네바서 美전문가들 만날 듯"(연합뉴스)
		北 변영립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사망(연합뉴스)
		美매체, 北남포항 석유저장시설 증설현장 포착(연합뉴스)
	11.16	北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김인룡으로 교체(연합뉴스)
	11.17	北 김정은, 인민군 수산사업소 잇달아 시찰(연합뉴스)
		北 장일훈·최선희, 제네바에서 美 38노스팀 접촉(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폐쇄 당시 그대로 9개월째 방치(연합뉴스)
		北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집필 마무리(연합뉴스)
	11.18	北 '우상화 선봉' 만수대창작사 사장 20여년만에 교체(연합뉴스)
경제	11.14	북한의 대중국 투자 사실상 중단…지난해 8천만원 수준(연합뉴스)
	11.15	"평양 비공식 경제비중 86.7%…사유화 빠르게 진전"(연합뉴스)
		北 '한국어 특허출원 번역' 외화벌이 시도(연합뉴스)
		中은행, 北 나선지구에 지점 개설해 영업(연합뉴스)
	11.18	北, 외화벌이 위해 스포츠 인력 해외파견(연합뉴스)
		중국 수산물 가공업 호황…北에 새 외화벌이 수단 제공(연합뉴스)
사회 문화	11.13	북, 주민들에 군용 은박지 내라 독촉(자유아시아방송)
	11.14	북한 안팎서 김정은 대신 숙부 김평일 옹립 목소리(연합뉴스)
	11.15	대북매체 "北, 교통·범죄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연합뉴스)
	11.16	알록달록해진 北수해지 주택들…복구 마무리 단계 관측(연합뉴스)
		방북 외국인들, 대북제재에도 평양은 안정적(연합뉴스)
		북 백화점 상품 판매경쟁 치열(자유아시아방송)
	11.17	대북매체 "北, 산림 남벌·도벌하면 최고사형 경고"(연합뉴스)
		北 함경북도 수재민, 신설 주택에 입주 시작(연합뉴스)
		북한 간부들, 주민 수탈하다 잇따라 보복 공격 당해(연합뉴스)

외교 국방	11.18	北수해지역 새 주택 입주민, 동상·관절염에 시달려(연합뉴스)
	11.12	美 전직관리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와 유사할 것"(연합뉴스)
		"북중접경지에 중국군 주둔시설 건설…北체제붕괴 대비"(연합뉴스)
	11.13	'공격론서 정권교체론까지'…美국무장관 후보들은 대북강경파(연합뉴스)
		푸틴, 北과 체결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요청(연합뉴스)
	11.14	크리스토퍼 힐 "트럼프 행정부,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 취할 것"(연합뉴스)
		페리 前장관, 대북선제타격은 위험하고 멍청한 일…협상해야(연합뉴스)
		中단둥 국제열차 검문 완화…北경유 탑승객 검사 간소화(연합뉴스)
		北, '스텔스초계함' 무장 강화 위해 헬리콥터 이착륙공간 폐기(연합뉴스)
	11.16	워싱턴타임스 "北 관영매체, 아직 트럼프 당선 보도 안해"(연합뉴스)
		카터 美국방, 미군의 당면 위협으로 북한 거론(연합뉴스)
		美태평양사령관, '北 ICBM보유' 평가 믿어…최악 가정하에 대비(연합뉴스)
		美국무부, 북미 제네바 트랙2 접촉에 "정부와 무관"(연합뉴스)
		北, 중국에 김정은 '뚱보 3세' 표현 사용 막아달라 요청(연합뉴스)
		미·중, 北석탄수출 통제강화 의견접근…내주 안보리결의 가능성(연합뉴스)
		영국 BBC, 내년 봄부터 한국어로 대북 라디오 방송(연합뉴스)
		38노스, 北핵실험·로켓발사 임박 징후 없어(연합뉴스)
	11.17	북한 국적 美유학생 18명…작년보다 10명 증가(연합뉴스)
		헤리티지, 韓 방위비 상당 부담…北핵 8개추정속 위험수준 낮춰(연합뉴스)
		中전문가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큰 기술적 문턱 남아"(연합뉴스)
	11.18	北 주제네바 대사, 주한미군 철수시 트럼프 정부와 관계 정상화(연합뉴스)
		北, 킹 美특사 방한 행보에 '단말마적 발악' 비난(연합뉴스)
		전 나토사령관 "북한, 트럼프 취임직후 직면할 안보현안 2위"(연합뉴스)
		'북미접촉' 美디트라니 "무조건 탐색적대화 나서야" 주장(연합뉴스)
		조선신보 "트럼프 공약,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연합뉴스)
		김원수 유엔차장 "北, 도발중단하고 비핵화 길로 돌아와야"(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1. 13.

■ **北김정은, 연평도 북방 4㎞ 최전방 시찰…軍 "도발시 강력응징"(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연평도 인근 서해 최전방에 있는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잇달아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 6주기를 앞두고 이뤄진 김정은의 최전방 부대 시찰이 국지도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함.
- 중앙통신은 갈리도 전초기지가 김정은에 의해 새로 세워졌다며 "적들이 조금이라도 허튼짓을 한다면 즉시 멸적의 포화를 들씌울 수 있게 전변된(바뀐) 강위력한 화력타격기지"라고 소개함.

2016. 11. 17.

■ **北 김정은, 인민군 수산사업소 잇달아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수산사업소 두 곳을 잇달아 시찰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없는 물고기잡이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인민군 5월27일 수산사업소와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17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5월27일수산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수천t의 도루메기(도루묵)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한한 물고기 대풍소식을 한시바삐 전하고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김정은의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겸 육군 상장이 동행함. 김정은은 각 사업소의 일꾼·종업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1. 15.

■ **北최선희, 베이징 도착…교도 "제네바서 美전문가들 만날 듯"(연합뉴스)**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15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으며, 통신은 최 국장이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교도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최국장이 제네바에서 미국의 연구원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북한이 미국 쪽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처음임.
- 최 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트럼프 차기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책이 어떨지가 기본이다"라고 말해 대북 정책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北 변영립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사망(연합뉴스)**

- 북한 변영립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87세를 일기로 사망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사망 일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변영립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고 보도함.
- 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를 졸업한 변 전 서기장은 북한 교육·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관료였으며, 그는 교육상과 국가과학원 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9~201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지냄.

2016. 11. 16.

■ **北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김인룡으로 교체(연합뉴스)**

-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이달 초 차석대사를 김인룡으로 교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RFA는 유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교관들의 평균 임기가 4~5년인데 전임 차석대사가 임기를 2년도 못 채운 상황에서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인룡이 자성남 대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함.
- 김 차석대사의 부임 사실은 지난 7일 그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처음 확인됐다고 RFA는 밝힘.

2016. 11. 17.

■ **北 장일훈·최선희, 제네바에서 美 38노스팀 접촉(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네바에서 시작하는 양측의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에 북한 측에서는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는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대화상대로 나선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이 아직 트럼프 당선을 공식 보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접촉을 두고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해보고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조율해보는 자리라는 분석도 나옴.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1. 12.

■ **北 중앙통신 대표단, 뉴스통신사세계대회 참가(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5회 뉴스통신사 세계대회(NAWC) 및 제16회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총회 참가차 12일 평양을 출발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창광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림호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주조(주북)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했다"고 보도함.
-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는 1961년 유네스코 발의로 아태지역 뉴스통신사간 정보교류와 뉴스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35개국 44개 사가 회원이며 조선중앙통신도 OANA 회원사임.

2016. 11. 13.

■ **"北, 홍수 피해 주택보다 경비초소 먼저 복구"(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말 발생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과정에서 일반 주택보다 경비초소를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제공한 함경북도 무산군 수해지역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같이 전했고, 해당 사진은 지난달 30일 중국 쪽에서 촬영된 것임.

- 사진을 입수한 아시아프레스 측은 "북한 당국이 주민의 탈북 방지를 위해 (주택은 제쳐놓고) 경비초소부터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또 북한 이재민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입주를 허락받았지만, 당국이 외관만 지어줬기 때문에 내부 공사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RFA는 덧붙임.

2016. 11. 14.

■ **北 노동당 중앙위, 수해복구 인력에 감사문(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함경북도 수해복구에 나선 군 장병과 주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발표했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노동당 중앙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문에서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이 2개월간 치열한 격전 끝에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에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번듯하게 솟아올랐다"고 수해복구 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함.
- 노동당 중앙위는 216사단, 여명거리건설돌격대, 618건설돌격대 등 수해복구에 투입된 군부대와 지역 주민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또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간에 폐허가 된 6개 시·군을 복구했다며 수해복구 인력의 공을 치켜세움.

2016. 11. 15.

■ **美매체, 北남포항 석유저장시설 증설현장 포착(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의 원유 하역시설이 대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15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이 공사가 지난 2015년 10월에서 2016년 2월 사이에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북한의 서해안에 있는 이 원유 하역장 시설은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제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라고 함.
- NK뉴스는 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로부터 유조선을 전세내서 유류제품들을 운송하기 시작했고, 독자적인 유조선 선단의 수도 늘리고 있다고 함.

2016. 11. 17.

■ **北, 개성공단 폐쇄 당시 그대로 9개월째 방치(연합뉴스)**

- VOA는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달 5일 촬영해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에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이 지난 2월 문을 닫을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 VOA는 "북한의 통보와 달리 300대 가까운 버스와 수십 대의 중장비 등 한국 측 자산은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성공단 내 도로에는 차량은 물론 사람의 이동 모습으로 보일 만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내 특이동향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말함.

■ **北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집필 마무리(연합뉴스)**

-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최근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의 집필을 마무리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가 17일 보도함.
- 사전은 총 4권, 7천 쪽에 달하며, 일상 어휘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교육 등 학술용어를 포함해 46만 7천여 개의 단어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함.
- 특히 선군시대의 새로운 '시대어'와 어휘 약 5만 개가 신규 포함됐으며, 연구소 학자들은 보통 몇 년이 걸리는 집필을 속도전인 '200일 전투'의 하나로 진행해 1년도 안 돼 끝냈다고 매체는 전함.

2016. 11. 18.

■ **北 '우상화 선봉' 만수대창작사 사장 20여년만에 교체(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연속참관기-주체미술사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 만수대창작사 혁명사적관을 찾아서(1)'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리경섭 만수대창작사 사장의 인터뷰를 실음.
- 리경섭이 만수대창작사의 새 사장이라는 사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 확인됐으며, 리경섭은 지난 8월 10일 만수대창작사 혁명사적관 개관식에 참석한 장면이 조선중앙TV 화면에 잠깐 비치기도 했음.
- 이전까지 만수대창작사의 사장은 주수용이었고, 주 전 사장은 1994년 12월부터 만수대창작사의 사장을 맡아 20여 년 동안 재직했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11. 18.

■ **北, 외화벌이 위해 스포츠 인력 해외파견(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가 힘들어지자 운동선수와 감독 등 스포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북한 체육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정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와 감독을 해외에 진출시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이 매체에 전함.
- 소식통은 체육 선수들을 해외에 진출시킬 경우 한 사람이 해외 근로자 수백, 수천 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외화를 벌 수 있어 당국이 스포츠 인력 파견을 중요시한다고 설명했으며, 평양시 체육단 관계자도 "스포츠 인력 파견은 표면적으로 민간 체육 교류를 표방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함.

다. 경제 상황

2016. 11. 15.

■ **"평양 비공식 경제비중 86.7%…사유화 빠르게 진전"(연합뉴스)**

- 북한의 엘리트층이 거주하는 평양에서 시장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곽인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통일부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통일·북한학 학술대회'에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평양의) 공식 경제비중은 13.3%, 비공식 경제비중은 86.7%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힘.
- 이들은 "평양의 기업소, 상점, 식당, 자동차, 백화점 등은 겉으로는 국가 기업소 명의를 걸어 놓았을 뿐 개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며 "사유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1. 14.

■ **북한의 대중국 투자 사실상 중단…지난해 8천만원 수준(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에 긴장관계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투자가 급속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국가통계국 등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투자액은 7만달러(약 8천200만원)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1997년 이후 최저치임.
- 2005년에 129만달러(약 15억원)를 기록한 북한의 대중 투자는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0년에 1천122만달러(약 131억원)로 최고치를 찍었지만 2011년부터 급감했고 2013년 268만달러(약 31억3천만원), 2014년 29만달러(약 3억4천만원), 2015년 7만달러로 내려앉음.
- 양국 간의 투자 규모는 올해 들어 더욱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올 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서 양국 교역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임.

2016. 11. 15.

■ **北 '한국어 특허출원 번역' 외화벌이 시도(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과 북한에 특허를 신청하려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년간 한국어 번역을 통한 외화벌이 시도를 해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기업 특허를 대행하는 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는 "북한 전문 번역회사로부터 2013년부터 수년간 '남한과 북한에 국제특허출원 서류'라는 제목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RFA에 밝혔고, 그는 "한국 특허청에는 한국어로 서류를 접수해야 해 전문 번역회사의 홍보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 이 중 주소가 특이한 이메일이 있어 확인해 보니 주소가 북한이었다"고 말함.
- 이 회사는 한국회사 번역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번역료를 받는다며 구체적인 가격도 제시했으며, 영문 특허서류의 한글 번역은 100글자당 9달러, 러시아어, 프랑스어의 한글 번역은 100글자당 12달러 등임.

■ **中은행, 北 나선지구에 지점 개설해 영업(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은행이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지구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최근 나선지구를 다녀온 중국의 한 기업인은 RFA에 "나선 특구에 중국의 한 은행이 지점을 내고 영업 중인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이 기업인은 중국의 은행지점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목격했다면서 중국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중국은행 지점 개설을 허용했을 것으로 추정함.
-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나선 특구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인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면 자금 세탁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은행이 나선지구에 신규지점을 개설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2016. 11. 18.

■ **중국 수산물 가공업 호황…北에 새 외화벌이 수단 제공(연합뉴스)**

- 북한과 가까운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의 수산물 가공업 호황이 북한에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18일 보도함.
- 훈춘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수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 늘었으며, 수산물 가공량과 수출입양도 각각 30%, 50% 증가함.
-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 호황으로 북한의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액도 올해 9월 기준 1억3천만 달러(약 1천528억8천만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 늘었다고 VOA는 전했으며, 또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이 증가한 것은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수산물 수출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1. 13.

■ **북, 주민들에 군용 은박지 내라 독촉(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인민군대를 지원한다며 주민들에게 은박지를 모아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급 담배 곽의 속지인 은박지를 군사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며,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0일 "중앙에서 군대를 지원한다며 은박지를 걷고 있다"면서 "여과(필터)담배의 속포장지인 은박지를 군사용도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주민들은 나중엔 별걸 다 거둔다며 비웃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북한주민들은 1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지원금과 물자를 바치라는 당국의 지시에 시달리고 있고, 발전소와 평양시 건설, 보육원과 본보기 농장, 도로, 철길, 수해복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이번에는 은박지를 모아서 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소식임.

2016. 11. 15.

■ **대북매체 "北, 교통·범죄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연합뉴스)**

- 북한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 통제와 범죄 감시를 위한 교통·감시카메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인 'NK뉴스'가 15일 보도함.
- 이 매체는 평양 당국이 자동차번호인식과 촬영 기능을 갖춘 교통·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지속해 확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평양시 만수교 인근 영웅거리 등 시내 여러 곳에서 이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고 전함.
- 한 북한 소식통은 "촬영된 사진을 보면 중국 스타일의 교통 감시 카메라 시스템으로 보인다"며 "이런 장치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다"고 NK뉴스에 말함.

2016. 11. 16.

■ **알록달록해진 北수해지 주택들…복구 마무리 단계 관측(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 주택들이 최근 알록달록한 색깔로 단장한 것으로 나타나 수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됨.
- 중국 투먼(圖們) 지역에서 북한의 수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남양시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택들의 재건축이 대부분 끝나 지붕이 붉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모습이 확인됐고, 이 사진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연합뉴스가 입수함.
- 정 실장이 제공한 남양시 지역의 다른 사진에는 도로도 정상화된 듯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약 한 달 전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 해봐도 남양시는 전체적으로 우중충한 분위기를 벗고 어느 정도 도시의 구색을 갖췄음.

2016. 11. 17.

■ **대북매체 "北, 산림 남벌·도벌하면 최고사형 경고"(연합뉴스)**

- 북한 정권이 산림을 남벌하거나 도벌하는 행위를 한 주민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17일 보도함.
- 이 매체가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포고문은 '산림복구전투에 저해를 주거나 산림자원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각 기관과 기업소·개인이 하지 말아야 할 산림조성 저해 행위를 나열함.
- 특히 이를 어기면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한다며 "산불을 일으키거나 특별보호림 구역에서 람도벌(남벌·도벌)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함.

■ **北 함경북도 수재민, 신설 주택에 입주 시작(연합뉴스)**

-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조인철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 함경북도 지역 이재민들이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를 시작한 사실을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다고 VOA는 전함.
- 익명을 요구한 평양주재 서방 외교관도 최근 VOA에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 입주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수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감시를 위해 함경북도 지역을 방문한 이 외교관은 새로 건설된 주택이 적어도 수천 가구에서 많게는 1만 가구 정도이며 주로 아파트와 2가구용 살림집이었지만 이전 주택과 별로 다르지 않고 단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1. 14.

■ **북한 안팎서 김정은 대신 숙부 김평일 옹립 목소리(연합뉴스)**

- 최근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대신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는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위원장 교체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함.
- 교체 여론의 배경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룻밤 새 리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을 처단한 행위에 대해 환멸을 느낀 북한 군부 고위층이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하는데다 북한 주민의 당국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음.

2016. 11. 16.

■ **방북 외국인들, 대북제재에도 평양은 안정적(연합뉴스)**

- 익명을 요구한 평양 주재 한 서양 외교관과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주간지 '동양경제'의 후쿠다 케이스케 편집위원은 VOA에 대북제재 이후에도 평양의 물가와 환율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입을 모음.
- 후쿠다 편집위원은 "환율은 시장 가격으로 1달러에 (북한돈) 8천원 정도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물가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안정적이었다"고 말함.
-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평양에 택시회사가 현재 모두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행 중인 택시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고, 평양 시내에 차량이 늘면서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번호판 홀짝제'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 **북 백화점 상품 판매경쟁 치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대도시에 있는 대형 백화점들이 매출증가를 위해 상품매대를 관리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을 압박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게 하는 등 북한의 백화점 풍경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전해짐.
- 최근 라선시에 다녀온 중국의 한 기업인은 "대형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그날그날 부과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고객 끌어 모으기 활동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예전과 달라진 북한의 백화점 분위기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소식통은 "백화점 내 상품 매대(코너)를 맡고 있는 여종업원들은 지배인으로부터 그날의 판매목표를 할당 받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을 당하며 장기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백화점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를 백화점의 한 종업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함.

2016. 11. 17.

■ **북한 간부들, 주민 수탈하다 잇따라 보복 공격 당해(연합뉴스)**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의 지시를 핑계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던 간부들에 대한 보복테러 사건이 올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런 보복테러는 자강도 외에도 전국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요즘 보안원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노동자규찰대를 주민단속에 내몰고 있다"며 "잘못하다가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몰라 간부들도 혼자서 다니지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이 방송에 전함.
-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만 올해 9월부터 두 달간 발생한 19건의 살인 사건 중 3건이 간부에 대한 보복성 살인이었고, 지난 10월 18일 여행객 짐을 단속해 빼앗은 청진역 보안서 보안원이 벽돌에 맞아 죽고, 학생들에게 휘발유와 뇌물을 강요하던 청진사범대 혁명역사학부 강좌장도 둔기에 맞아 살해됐다고 소식통은 RFA에 밝힘.

2016. 11. 18.

■ **北수해지역 새 주택 입주민, 동상·관절염에 시달려(연합뉴스)**

-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지난 15일부터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부실 공사 때문에 동상과 관절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북한전문 매체 데일리NK가 18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북부 두만강 지역에서 주택 입주가 시작됐지만, 벽체와 방바닥이 습기로 질퍽해 동상과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함.
- 한편, 북한 당국이 주택 입주에 맞춰 주민들에게 컬러 TV와 각종 선물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불과 담요 외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1. 12.

■ **美 전직관리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와 유사할 것"(연합뉴스)**

-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6자회담 전 차석대표는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디트라니 전 대표는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추구해 그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핵물질 생산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북한 측과의 바람직한 신뢰구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중간 목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됨.

2016. 11. 13.

■ **'공격론서 정권교체론까지'…美국무장관 후보들은 대북강경파(연합뉴스)**

- 차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과거 대북 강경론을 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 한 명의 입각이 미국 대북 정책의 강경화로 연결될지 주목됨.
-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국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은 강경한 대북 발언 및 행동을 취해왔다는 공통점이 제기됨.
- 특히 깅리치 전 의장은 한때 대북 공격론까지 거론했으며, 깅리치는 2010년 7월 29일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북한과 이란, 이라크 가운데 이라크만 공격했으나 나머지 북한과 이란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있음.

2016. 11. 14.

■ **크리스토퍼 힐 "트럼프 행정부,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 취할 것"(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내다봄.
-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통일부 주최 한반도 국제포럼 세미나 참석에 앞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힘.
- 힐 전 차관보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적 요소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트럼프의 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했고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대화를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함.

■ **페리 前장관, 대북선제타격은 위험하고 멍청한 일…협상해야(연합뉴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선제 타격 론에 대해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이른바 '3 노(No)' 원칙을 북한이 단계적으로 준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힘.
- 방한 중인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로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고, 페리 전 장관이 언급한 해커 박사의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을 말함.
-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핵무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협상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6. 11. 16.

■ **워싱턴타임스 "北 관영매체, 아직 트럼프 당선 보도 안해"(연합뉴스)**

- 워싱턴타임스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진 지 6일이 지난 전날까지도 북한관영매체들이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미국 CNN은 지난 6월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이며 선견지명이 있는 후보'로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함.
- 2008년 북한 매체들은 미국 대선으로부터 사흘 뒤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알린 적 있음.

■ **카터 美국방, 미군의 당면 위협으로 북한 거론(연합뉴스)**

- 북한의 위협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의 악의적 행위들과 더불어 미군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목함.
-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전날 미 시사잡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인과 대담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5년간 직면할 만한 위협 중 무엇이 가장 심각하겠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힘.
- 카터 장관은 "우리(미군)는 거기(한반도)에 수십 년 간 있었고 매일 밤 우리는 한국을, 그리고 우리들(미군)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불침번을 서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북한에 대한 우리(미군)의 구호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오늘 밤이라도 싸운다)'"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美태평양사령관, '北 ICBM보유' 평가 믿어…최악 가정하에 대비(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보유하고 있다는 군 당국의 평가를 믿고 있으며,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갖고 있다고 밝힘.
-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 주최 강연회에서 "내 친구 윌리엄 고트니 전 북부 사령관이 (과거에)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군사령관으로서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고트니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4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ICBM을 우주(대기권)로 쏘아 올린 뒤 미국과 캐나다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이것이 미 전역과 캐나다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하는 것이 북부 사령관으로서의 신중한 결정"이라고 증언함.

■ **美국무부, 북미 제네바 트랙2 접촉에 "정부와 무관"(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 간 '제네바 트랙2 접촉'에 대해 "정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힘.
-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트랙2 접촉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제로 일상적으로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고, 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목표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에 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해야 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북미접촉에 대한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임.

2016. 11. 17.

■ **북한 국적 美유학생 18명…작년보다 10명 증가(연합뉴스)**

- 미국에서 유학하는 북한 국적의 학생 수가 지난 8월 말 기준 18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RFA는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고, 북한 국적의 미국 유학생 18명 가운데 16명은 대학교 학사 과정에 있으며 1명은 대학원, 나머지 1명은 비학위 과정이라고 RFA는 전함.
- RFA는 "이는 1년 전 미국에서 유학 중인 북한 국적 유학생 수(8명)보다 10명 증가한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석사와 비학위 과정은 없고, 8명 전원 학사 과정에만 등록됐었다"고 설명함.

2016. 11. 18.

■ **北 주제네바 대사, 주한미군 철수시 트럼프 정부와 관계 정상화(연합뉴스)**

- 서 대사는 주제네바 유엔 북한대표부에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접어야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함.
- 서 대사는 "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자원의 남한 철수와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한다면 1990년대처럼 관계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함.
- 트럼프가 대선후보 시절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서 대사는 "만남은 최고지도자(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함.

■ **北, 킹 美특사 방한 행보에 '단말마적 발악'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최근 방한 행보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논의를 겨냥해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장수웅 연구사라는 인물은 이날 '제명을 다 산 자들의 가소로운 넋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논평은 이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 인종문제 등과 관련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회는 심히 분열되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곳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전 나토사령관 "북한, 트럼프 취임직후 직면할 안보현안 2위"(연합뉴스)**

-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다루는 일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로 시급한 안보분야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사령관이 예상함.
-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대북정책 시행을 위해 "중국의 협력과 공세적인 (미국의) 사이버 전력, 첨단기술이 들어간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출된 계획"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한 직후 받아 볼 안보분야 현안의 "맨 위에 러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러시아가 "한번의 공격으로 미국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 전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와 크림 반도, 시리아, 그리고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미접촉' 美디트라니 "무조건 탐색적대화 나서야" 주장(연합뉴스)**

-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하고, 따라서 북한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탐색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6자회담 전 차석대표가 주장함.
-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17일(현지시간) 한반도문제 전문가 모임인 '코리아 클럽' 강연을 통해 "동북아의 안보구조가 됐든 에너지 문제가 됐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주제로 삼아 탐색적 대화를 진행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냄.
-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공식 대화가 진행됐을 때도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함께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과 만났음.

■ **조선신보 "트럼프 공약,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호의적으로 평가함.
- 조선신보는 이날 '메아리' 코너에 실은 '클린톤(턴)과 트럼프'라는 제목의 짤막한 논평 형식의 글을 통해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야비하고 차별주의적인 발언들로 비난받았다"면서 "그러나 그의 공약이 중요하다"고 밝힘.
- 신문은 "그것(공약)은 이젠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자기 나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빈사상태인 경제를 어떻게 하나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며 썩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함. 그러면서 이 공약은 "아주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평가함.

나. 북·중 관계

2016. 11. 12.

■ **"북중접경지에 중국군 주둔시설 건설…北체제붕괴 대비"(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노동자구를 마주하고 있는 옌볜(延邊)자치주 룽징(龍井)시 카이산툰(開山屯)진에 대규모 군 주둔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북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국 당국이 지난 8월부터 카이산툰진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있다"며 "현재 그곳에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중장비들과 자재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북한도 중국군 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삼봉노동자구 상삼봉 정상에 관측소를 세우고 20여 명의 인민군 병사들을 배치했다"고 전했고, 이에 대해 룽징시의 한 조선족 주민은 "중국 당국이 이렇게 대놓고 북한과의 국경 인접지역에 인민해방군 부대를 주둔시킨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2016. 11. 14.

■ **中단둥 국제열차 검문 완화…北경유 탑승객 검사 간소화(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여행업계에 북한 관광상품 개발을 종용한 데 이어 주요 북중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국경검문 절차를 완화하는 등 북중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섬.
- 14일 접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단둥 국경수비검사소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현지시간) 북한 신의주를 통해 단둥으로 진입한 국제열차를 시작으로 외국인 탑승객에 대해 일일히 여권을 수거해 검사하는 종전의 절차를 간소화함.
- 이에 따라 북한에서 출국수속을 밟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검사소에서 간단한 신분확인 후 단둥에 내리거나 곧장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고, 단둥 국경수비검사소의 검문 완화 조치는 중국 당국의 국경관광 활성화 방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16. 11. 16.

■ **北, 중국에 김정은 '뚱보 3세' 표현 사용 막아달라 요청(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뚱보'로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관측이 제기됨.
- 16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바이두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인터넷에서 김정은을 희화화한 '진싼팡'(뚱보 3세)이라는 표현의 검색이 차단됨.
- 현재 신랑 웨이보에서 진싼팡을 검색하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검색 결과가 표시되

지 않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며 바이두와 소후닷컴 등에서는 '죄송합니다. 진싼팡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6. 11. 13.

■ **푸틴, 北과 체결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요청(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들어감.
-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국가두마(하원) 비준 절차에 넘겼다고 전했으며, 조약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공식 발효함.
-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형사 공조 분야 주요 협정이며,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1. 16.

■ **미·중, 北석탄수출 통제강화 의견접근…내주 안보리결의 가능성(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강화 방안에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2개월 넘게 끌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핵실험 제재 결의가 내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짐.
-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민생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고, 양측은 '민생예외'에 대한 북·중의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

은 "(안보리 결의의) 내용보다는 정치적으로 (미중이)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전함.

■ **영국 BBC, 내년 봄부터 한국어로 대북 라디오 방송(연합뉴스)**

- 영국 공영방송 BBC가 내년 봄부터 북한에 매일 한국어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송출함.
- BBC는 영국을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월드 서비스'를 194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을 영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신설 11개 언어 중 하나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해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 대해 정규 방송에 나섬.
- 일간 더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BBC의 대북방송은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매일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 30분씩 뉴스 프로그램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함.

2016. 11. 18.

■ **김원수 유엔차장 "北, 도발중단하고 비핵화 길로 돌아와야"(연합뉴스)**

- 방한 중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는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힘.
-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사무차장은 전날 제주에서 개막한 '제1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깊은 우려의 원천이 돼왔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김 사무차장은 북한의 올해 4차·5차 핵실험과 30여 차례에 가까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성공 여부를 떠나 북한이 무모하게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진보를 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1. 14.

■ **北, '스텔스초계함' 무장 강화 위해 헬리콥터 이착륙공간 폐기(연합뉴스)**

- 북한 나진항에서 포착된 스텔스 기능의 신형 초계함은 무기를 더 장착하기 위해 헬리콥터 이착륙 공간(헬리패드)을 없앤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국제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사가 확보한 인공위성 사진 판독 결과 나진항에서

건조 중인 스텔스 기능 추가 신형 초계함 두 척은 지난 2014년 처음 밝혀진 초계함과 같은 설계로 이뤄졌다고 함.

- 앞서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는 나진항에서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초계함이 포착됐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반면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는 "(해당) 초계함이 현대화된 대함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경우에만 그 위협이 실질적일 것"이라고 NK뉴스에 전함.

2016. 11. 16.

■ **38노스, 北핵실험·로켓발사 임박 징후 없어(연합뉴스)**

- 북한의 이른 시기 안에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짐작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5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9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쪽 갱도 입구와 서쪽 갱도 입구에서 유지보수와 소규모 굴착 작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관찰됐으며 "낮은 수준의 활동"만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함.
- 38노스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발사장을 촬영한 지난 9일 사진에서도 최근에 엔진 연소시험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발사대 주변에서도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힘.

2016. 11. 17.

■ **헤리티지, 韓 방위비 상당 부담…北핵 8개추정속 위험수준 낮춰(연합뉴스)**

-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펴낸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핵과 관련해선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소개함.
-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자금 제공과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약 9억 달러(약 1조566억 원)를 내고 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수단(미사일) 능력도 의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함.

■ **中전문가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큰 기술적 문턱 남아"(연합뉴스)**

- 정지융 중국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교수는 17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제어, 정밀도, 원격조작에 의한 기폭 등의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직 큰 기술적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정 교수는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 역량에 대해 "열핵(熱核)화, 소형화, '수소폭탄과 미사일의 결합' 등 3단계 중 북한은 이미 열핵반응(열평형상태에 있는 원자핵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운동에 따른 핵반응)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며 "지난 4,5차 핵실험은 실제로 열핵반응 관련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함.
-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이미 숙련된 육지 발사 능력과 어느 정도 발전된 해상발사 능력을 갖추는 등 핵 능력을 증명했다"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수소폭탄 등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이뤘으며, 상응하는 위협성과 협상능력을 증가시켰으나 진정한 의미의 체계적 핵 위협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평가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1.13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 대응 강화한다‥민관협의회 가동(연합뉴스)	
	11.14	홍용표, 美 차기 정부와 협력‥평화통일은 한·미 공동의 목표(연합뉴스)	
		국방부 "트럼프, 방위비분담 증액·한국군 자강노력 요구할 듯"(연합뉴스)	
	11.15		美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위협속 양국 협력 강화에 기여"(연합뉴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트럼프, 북한 문제에 기회일수도"(연합뉴스)	
			트럼프 외교정책통, 한국 핵무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연합뉴스)
	11.16		가드너 美상원의원, 방미 의원단에 "한미 동맹 굳게 지킨다"(연합뉴스)
	11.17	한·미 '북핵대응' 고위급협의체 준비 시동‥실무협의 개최(연합뉴스)	
		윤병세, 美 새 행정부에서도 동맹중시·대북압박 유지 전망(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13		日언론 "일본 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내달 19~20일 개최 타진"(연합뉴스)
		'번갈아가며 올림픽' 한일중, 對테러공조 논의(연합뉴스)	
	11.14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SLBM 대응에 실질 도움"(연합뉴스)	日관방, 군사정보협정 조기체결 위해 한·일간 협력 강화(연합뉴스)
	11.15	軍, 한·일군사협정체결시 日에 '감청·휴민트정보' 제공할 듯(연합뉴스)	日 한·일군사정보협정 속도전‥"韓 내부 반발로 체결여부 불투명"(연합뉴스)

	11.17		한·일 군사정보협정 차관회의 의결‥22일 국무회의 상정(연합뉴스)
	11.18		日언론 "朴대통령, 12월19~20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의향 전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12	오바마, 내주 시진핑-유럽 정상들과 정상회담(연합뉴스)	
	11.14		시진핑, 트럼프와 첫 통화 "中·美 협력만이 옳은 선택"(연합뉴스)
	11.15	오바마 행정부 美·中, 베이징·워싱턴서 마지막 연쇄접촉(연합뉴스)	
			AIIB총재 진리췬 "美, 트럼프 정부 출범후 AIIB 합류 가능성"(연합뉴스)
			中매체 "트럼프, 美재건하려면 항공모함보다 경제 집중해야"(연합뉴스)
	11.17	트럼프 당선 뒤 미·중 첫 합동 '재난 구호' 군사훈련(연합뉴스)	
		"중국 국영기업에는 미국 기업 팔지 마라" 미국 정부기구 권고(연합뉴스)	
			중, 온난화 대책도 주도?…"미국 빠져도 협상·자금지원 계속"(연합뉴스)
	11.18	오바마-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핵심의제는 북한 문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13		교도 "카터 美 국방, 내달 방일…차기 정권 출범 전 현안 논의"(연합뉴스)
			폐기수순 TPP 포기 않는 日…아베, 뉴욕회담서 트럼프 설득(연합뉴스)
	11.14		아베 총리, TPP발효 일본이 주도해야…미국 빼고 추진?(연합뉴스)
	11.16		트럼프에 달려가는 아베…내일 뉴욕서 만나 미일동맹 재확인(연합뉴스)
	11.18		아베 日총리, 트럼프는 믿을만한 지도자…신뢰 구축 확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13	트럼프, 푸틴에게서 멋진 서한 받았다…곧 통화할 것(연합뉴스)	
	11.14		러 외무부, 맥폴 前 주러 미국 대사 러시아 입국 금지(연합뉴스)

	11.16		푸틴, 트럼프와 통화 직후 시리아 공습 재개‥美정책 우려 커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13		日전범처벌 도쿄재판 70주년‥중국, 진상 왜곡 용납 못해(연합뉴스)
		日, 센카쿠 등 무인도서 무장충돌 대비 첫 훈련‥중국 견제용(연합뉴스)	
	11.17	日, 아세안과 군사훈련 등 방위협력 강화 추진‥中 견제 포석(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1. 13.

■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 대응 강화한다…민관협의회 가동(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회 등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힘.
- 산업부는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 통상 분과회의를 '대미통상협의회'로 확대 개편함.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업종별 주요 협회, 무역 지원기관, 주요 연구기관,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이 협의회는 대미 통상 대책과 양국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역할도 추진할 예정임.

2016. 11. 14.

■ **홍용표, 美 차기 정부와 협력…평화통일은 한·미 공동의 목표(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한미 대북정책의 공동목표로 삼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홍 장관은 통일부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16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고 선도하는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진행하는 것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중 하나"라고 말함.

■ **국방부 "트럼프, 방위비분담 증액·한국군 자강노력 요구할 듯"(연합뉴스)**

- 국방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여도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국군의 자강(自强)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미국 (차기 행정부

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미국의 역할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 및 능력의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그같이 전망함.

-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재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압박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조건 충족 시 대화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하고, 가일층 적극적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함.

2016. 11. 15.

■ **美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위협속 양국 협력 강화에 기여"(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힘.
-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양국 정부의 GSOMIA 가서명 보도를 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함.
-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 정부는 그동안 줄곧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 사항은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함.

■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트럼프, 북한 문제에 기회일수도"(연합뉴스)**

- 미국에서 제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일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주장함.
- 미국을 방문 중인 유 수석부의장은 1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간의 긴장을 풀 수 있다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반도에 미치는 전략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냄.
- "그동안 러시아는 수동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한 그는"러시아가 만약 입장을 조금 더 한반도의 비핵화로 기울이거나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중국이 움직일 수 있고, 그 경우 북한이 막무가내식의 핵무기 개발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함.

■ **트럼프 외교정책통, 한국 핵무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통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 보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짐.
- 하스 회장은 14일(현지시간) CFR 뉴욕본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실 산하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미국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밝혔다고 면담에 참석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전함.
-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하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는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2016. 11. 16.

■ **가드너 美상원의원, 방미 의원단에 "한미동맹 굳게 지킨다"(연합뉴스)**

-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게 지키고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의원이 강조함.
- 가드너 의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 러셀 의원회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의장실 산하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과 만나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강한 관계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 성장시킬지에 대해 (의원단과) 아주 훌륭한 대화를 했다"고 밝힘.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우리(미국)는 우리의 동맹과 한국과의 관계를 굳게 지킨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우리(미국)의 정부 체계에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도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로 생각한다"고 설명함.

2016. 11. 17.

■ **한·미 '북핵대응' 고위급협의체 준비 시동…실무협의 개최(연합뉴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출범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 전략적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함.

-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석함.

■ **윤병세, 美 새 행정부에서도 동맹중시·대북압박 유지 전망(연합뉴스)**

-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 후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등 캠프 인사들이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위협의 심각성·엄중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 윤 장관은 "그동안 당선인 진영과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발전돼 온 것처럼 미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당선인의 개인적 소견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 대외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요 입각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어떤 예단을 하기보다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2016. 11. 13.

■ **日언론 "일본 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내달 19~20일 개최 타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내달 19~20일 이틀간 일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한중 양국에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12월 초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중국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요미우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 내에선 이번 일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임.

■ **'번갈아가며 올림픽' 한일중, 對테러공조 논의(연합뉴스)**

- 내후년부터 3차례의 동하계 올림픽을 잇달아 치르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대 테러 공조를 위해 머리를 맞댐.
- 외교부는 제4차 한·일·중 대테러협의회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힘.
- 협의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테러 위협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한다. 또 외국인테러 전투원 대응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임.

2016. 11. 14.

■ **日관방, 군사정보협정 조기체결 위해 한·일간 협력 강화(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한일 당국이 이날 도쿄에서 가서명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협정 조기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야당의 반발이 GSOMIA 진전에 영향이 없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이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지난 12일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리면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내정이라서 코멘트를 피하겠다"면서도 "특단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함.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SLBM 대응에 실질 도움"(연합뉴스)**

- 국방부는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국방부는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6. 11. 15.

■ **軍, 한·일군사협정체결시 日에 '감청·휴민트정보' 제공할 듯(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시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II급 비밀', '군사III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비밀등급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비밀 등급을 해당 국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이 '방위비밀'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외비' 수준일 수도 있다고 함.

■ **日 한·일군사정보협정 속도전…"韓 내부반발로 체결여부 불투명"(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5일 양국 정부가 전날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완료에 따라 공식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 가서명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법령 심사와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이 협정은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 NHK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인과 측근들이 구속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데다, 야당도 일본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한 뿌리 깊은 반발이 있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함.

2016. 11. 17.

■ **한·일 군사정보협정 차관회의 의결…22일 국무회의 상정(연합뉴스)**

-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
-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함.

- 이에 따라 GSOMIA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GSOMIA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림.

2016. 11. 18.

■ **日언론 "朴대통령, 12월19~20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의향 전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다음달 19~20일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특히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참석에 긍정적이라고 전함.
- 일본은 당초 양측에 다음달 3~4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측이 답변을 주지 않자 일정을 재조정 해왔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1. 12.

■ **오바마, 내주 시진핑-유럽 정상들과 정상회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회동한다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11일(현지시간) 밝힘.
- 제24회 APEC 정상회의는 19~20일 이틀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릴 예정임.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독일 베를린 방문 기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만나 양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전함.

2016. 11. 14.

■ **시진핑, 트럼프와 첫 통화 "中-美 협력만이 옳은 선택"(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중국 현지시간) 오전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키로 함.
-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란 점은 여러 사실들이 증명해 준다"고 말함.
- 트럼프 당선인도 "양국이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화답했고, 두 사람은 미중 관계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CCTV는 전함.

2016. 11. 15.

■ **오바마 행정부 美·中, 베이징·워싱턴서 마지막 연쇄접촉(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21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 협력 분야까지 논의함.
- 이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중국 정부와 마지막 연쇄접촉으로,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기존 협력 분위기를 다져 차기미 행정부로 이런 분위기로 이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제14차 미·중법집행협력 연합회의(JLG)를 한다고 15일 밝힘.

■ **AIIB총재 진리췬 "美, 트럼프 정부 출범후 AIIB 합류 가능성"(연합뉴스)**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진리췬 총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AIIB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진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 고문인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0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 중국 태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직후에 나옴.
-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사이트에 따르면 진 총재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AIIB를 지지하거나 AIIB 가입의 뜻을 암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AIIB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트럼프 당선후 트럼프 진영의 많은 참모들이 오바마가 AIIB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내게 알려주는 이들이 있었다"고 전함.

■ **中매체 "트럼프, 美재건하려면 항공모함보다 경제 집중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 최강 미국을 재건하려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함.
-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과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대립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경기 부양 등 내치에만 집중하길 바라는 의도가 반영돼있음.
- 1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전화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4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호 협력을 강조했고 트럼프 당선인 또한 양자 관계 중요성으로 화답했다면서 이는 양국 지도자 간 외교 접촉의 좋은 출발이자 미·중 관계 전환의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함.

2016. 11. 17.

■ **트럼프 당선 뒤 미·중 첫 합동 '재난 구호' 군사훈련(연합뉴스)**

-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육군와 미국 태평양 육군은 지난 16일 윈난성 쿤밍 남부 전구 종합훈련기지에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와 관련한 합동 훈련을 개시함.
- 이번 훈련은 양국군이 지난 2013년 연례 개최에 합의한 뒤 4번째 이뤄지는 교류 행사이며, 사흘 동안 실시되는 이번 합동 훈련에는 중국군 134명, 미군 89명이 참가했으며 헬리콥터와 부교, 각종 의료 및 기술 장비 등이 동원됨.
- 이번 합동 훈련은 가상의 국가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미·중 양국군이 구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존자 수색 및 구조와 관련 정보 교류 등이 이뤄짐.

■ **"중국 국영기업에는 미국 기업 팔지 마라" 미국 정부기구 권고(연합뉴스)**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업을 대거 인수함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기업을 활발하게 인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정부 소유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위험이 높아진다. 기술과 정보, 시장 영향력을 가지게 돼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적음.
- 로디엄 그룹(Rhodium Group)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미국 기업인수와 미국에 대한 그린필드투자(greenfield investment·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합

치면 이미 180억 달러(약 21조1천300억 원) 규모로 이미 작년 연간실적(153억 달러)을 넘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0배 수준임.

■ **중, 온난화 대책도 주도?…"미국 빠져도 협상·자금지원 계속"(연합뉴스)**

- 17일 NHK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에 참석중인 셰전화 중국기후변화사무 특별 대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난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함.
- 셰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모로코 현지에서 열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회의에서 이같이 말해 중국이 온난화 대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함.
-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파리협약 조기발효에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협력해 협약을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해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협력해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2016. 11. 18.

■ **오바마-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핵심의제는 북한 문제"(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4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함.
-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함에 따라 페루에서의 회동은 두 정상 간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이며, 두 정상은 지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임.
- 마지막 회동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그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도발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처가 중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임.

나. 미·일 관계

2016. 11. 13.

■ **교도 "카터 美 국방, 내달 방일…차기 정권 출범 전 현안 논의"(연합뉴스)**

- 미·일 양국 정부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내달 초 일본 방문을 위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 이는 미·일 동맹 방식에 비판적 자세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권이 출범하기 전 현안을 착실히 진전시키려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일본 측은 미국 형사법 절차를 우선 적용하는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를 축소하고자 양국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보완하는 '보충협정'의 연내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카터 장관의 방문에 맞춰 이를 추진할 계획임.

■ **폐기수순 TPP 포기 않는 日…아베, 뉴욕회담서 트럼프 설득(연합뉴스)**

-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목표로 12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주요 참가국인 일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TPP 살리기' 행보에 나섬.
- TPP를 성장전략의 축으로 삼아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선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가속하고,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온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TPP의 기사회생이 필요하기 때문임.
- 13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뉴욕회담에서 TPP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할 방침임.

2016. 11. 14.

■ **아베 총리, TPP발효 일본이 주도해야…미국 빼고 추진?(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이 TPP 조기 발효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
-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금융정보 서비스인 닛케이 퀵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TPP 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정권교체기인 만큼 일본이 TPP 조기 발효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베 총리는 TPP 비준이 이뤄지면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일본의 결의와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함.

2016. 11. 16.

■ **트럼프에 달려가는 아베…내일 뉴욕서 만나 미일동맹 재확인(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뉴욕에서 회담함.
-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일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당선인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임.
- NHK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하는 TPP를 염두에 두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동시에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긴밀히 연대하자는 점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2016. 11. 18.

■ **아베 日총리, 트럼프는 믿을만한 지도자…신뢰 구축 확신(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음.
-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90분 동안 만났다고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밝힘.
- 아베 총리는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함.

다. 미·러 관계

2016. 11. 13.

■ **트럼프, 푸틴에게서 멋진 서한 받았다…곧 통화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축전을 받았다고 밝힘.
-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 뒤 여러 세계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축전을 받았다"면서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서 멋진 서한(축전)을 받았다"고 소개함.
- 그는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라고 전함.

2016. 11. 14.

■ **러 외무부, 맥폴 前 주러 미국 대사 러시아 입국 금지(연합뉴스)**

- 마이클 맥폴 전(前) 주러 미국 대사의 러시아 입국이 금지된 것이 사실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13일(현지시간) 확인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맥폴은 의도적으로 미-러 양국 관계를 훼손해 왔다"면서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밝힘.
- 앞서 맥폴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제제 목록에 포함돼 있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2016. 11. 16.

■ **푸틴, 트럼프와 통화 직후 시리아 공습 재개…美정책 우려 커져(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불확실한 시리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시리아 서부 이들리브와 홈스에서 '이슬람국가(IS)'와 시리아 테러리스트 근거지들을 공격했다고 밝힘.
- 이날 공격에는 지중해에 배치된 러시아 항공모함도 가세했고, 알레포 동부의 반군 장악 지역에도 약 한 달 만에 집중적인 폭격이 가해짐.

라. 중·일 관계

2016. 11. 13.

■ **日전범처벌 도쿄재판 70주년…중국, 진상 왜곡 용납 못해(연합뉴스)**

- 2차 세계 대전 당시 A급 전범의 처벌을 결정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의 개정(開廷) 70주년을 맞이해 중국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진상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섬.
-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A급 전범에 대한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역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 데 따른 중국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장제 상하이교통대 총장은 "도쿄재판과 유럽의 뉘른베르크재판은 인류가 비참한 전쟁을 거친 뒤 전쟁을 도발한 자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시도하는 자를 단념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함.

■ **日, 센카쿠 등 무인도서 무장충돌 대비 첫 훈련…중국 견제용(연합뉴스)**

- 일본이 현재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해 외딴 섬을 점거한 무장어민에 대응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전함.
- 훈련은 지난 11일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奄美)군도에 있는 무인도 에니야바나래지마(江仁屋離島)에서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림.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다며 '해공 연락 메커니즘' 조기 운용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기로 한 바 있음.

2016. 11. 17.

■ **日, 아세안과 군사훈련 등 방위협력 강화 추진…中 견제 포석(연합뉴스)**

- 17일 교도통신과 베트남통신 등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전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일·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양측 방위협력 증진 방안을 담은 '비엔티안 비전'을 제시함.
- 이 제안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일본이 정보 수집과 경고, 감시, 수색, 구조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이 아세안의 역내 합동 군사훈련과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방위 장비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앞으로 아세안과 국방차관급 회의를 통해 비엔티안 비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14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두번째 회의…北인권 증진방안 논의(연합뉴스)
		킹 美특사 "北인권 초당적 이슈…트럼프 행정부도 공조 예상"(연합뉴스)
		유엔총회 3위원회 15일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지지 국가 꾸준히 증가(미국의소리)
	11.15	탈북민들 "과감한 대북정책 펴달라"…트럼프에 편지(연합뉴스)
		北 노동자, 러시아 축구경기장 건설 현장서 또 추락사(연합뉴스)
	11.16	유엔총회 12년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 더 명확화(연합뉴스)
		유럽탈북민단체, 19일까지 북한자유주간…북한인권실태 폭로(연합뉴스)
		유럽 탈북자단체, 파리서 "北 핵개발·인권유린 규탄"(연합뉴스)
	11.17	헤이그서 21일 ICC 총회 부대행사로 북한인권토론회 개최(연합뉴스)
		日 관리 "납북자 송환 아베정부 최우선 과제…김정은 ICC 제소"(연합뉴스)
		탈북단체, 北에 소형PC '라즈베리 파이' 밀반입시켜 변화유도(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1.15	주한공관장, 北인권 머리맞대…탈북민 증언도 들어(연합뉴스)
	11.16	윤병세,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접견…"긴밀 협력 기대"(연합뉴스)
		외교부,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환영(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12	"北억류 미국인 웜비어씨, 7개월 넘게 영사 접견 안돼"(연합뉴스)
	11.13	탈북민 3만 명 돌파…올해 지난해 대비 18% 증가(연합뉴스)
대북지원	11.14	WFP, 3분기 대북 분배 감시 226차례…올 들어 최저(미국의소리)
	11.15	러시아, 北 수해 주민에 식량·디젤유 870t 전달(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1. 14.

■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두번째 회의…北인권 증진방안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개선 방안 등을 협의함.
- 이번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회의는 지난 10월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이며,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각각 참석함.
-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 규명 강화,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방안,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 정보 접근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킹 美특사 "北인권 초당적 이슈…트럼프 행정부도 공조 예상"(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4일 서울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개선 방안 등을 협의함.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회의에서 "북한인권은 미국 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로서 내년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킹 특사는 이어 "미국 신 행정부도 (북한인권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함.

■ **유엔총회 3위원회 15일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지지 국가 꾸준히 증가(미국의소리)**

-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내일(15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유엔총회에 제출돼 왔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음.
- 이어 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됐고, 이결의안에 111개국이 찬성함.

- 이듬해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12개국이 찬성했고, 올해도 3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2016. 11. 15.

■ **탈북민들 "과감한 대북정책 펴달라"…트럼프에 편지(연합뉴스)**

- NK지식인연대 등 20개 탈북민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권고하는 탈북 엘리트들의 자유통일정책 영상포럼'을 열어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의 핵, 인권, 독재의 항구적인 해법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뿐"이라면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힘.
- 이들은 편지에서 "핵이 없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한다"며 "(당신이) 대선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을 종식하겠다고 한 공약들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적음.
- 이어 "당선인께서 기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구사해준다면 북한 체제와 김정은은 추풍낙엽의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구상하는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받들어 부모·형제들을 구원하고, 통일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앞당기고 싶다"고 호소함.

■ **北 노동자, 러시아 축구경기장 건설 현장서 또 추락사(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1명이 또다시 숨졌으며, 러시아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추락사 등으로 사망함.
-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 인터넷 신문 '폰탄카' 등에 따르면 이 도시에 세워지고 있는 축구경기장 '크레스톱스키' 건설 현장에서 14일 새벽(현지시간) 47세 북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함.
- 동료들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으나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북한 노동자는 이미 숨져 있었고, 사고를 당한 이 노동자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됨.

2016. 11. 16.

■ **유엔총회 12년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 더 명확화(연합뉴스)**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됨.
-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고, 북한은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이날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됨.
-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됨.

■ **유럽탈북민단체, 19일까지 북한자유주간…북한인권실태 폭로(연합뉴스)**

- 재유럽탈북민총연합회(유럽총연, 회장 장만석)를 비롯한 유럽내 탈북민단체들은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북한자유주간으로 지정, 유럽 곳곳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지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힘.
- 유럽총연은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 청사 앞에서 북한 인권 그림·사진전시회를 잇따라 열고 인권 탄압의 책임이 있는 북한의 최고 실권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함.
- 유럽총연은 성명서를 통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가 이뤄져야 하며, 유럽과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강도 높게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 탈북자단체, 파리서 "北 핵개발·인권유린 규탄"(연합뉴스)**

- 유럽 각국에서 모인 탈북민 20여 명과 프랑스 한인회 회원은 이날 오후 파리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여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유럽총연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유엔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럽총연은 또 "북한 주민은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당국의 처벌, 고문, 가혹 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을 ICC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고 밝힘.

2016. 11. 17.

■ **헤이그서 21일 ICC 총회 부대행사로 북한인권토론회 개최(연합뉴스)**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국제인권단체인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제프리 나이스 재단과 함께 오는 21일 헤이그에서 'ICC(국제형사재판소)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주제로 북한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힘.
- 이번 북한 인권 토론회는 처음으로 ICC 당사국총회 기간에 부대행사로 열릴 것이며,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개최돼 주목되고 있음.
- 토론회에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주석궁 만수무강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탈북민 김형수씨, 유고전범재판소 검사를 지낸 제프리 나이스 씨, 데이비드 호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발표자로 나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 실상,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ICC 차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일 것임.

■ **日 관리 "납북자 송환 아베정부 최우선 과제…김정은 ICC 제소"(연합뉴스)**

- 일본 총리실 산하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시마다 다케히로 정책기획과장은 17일 태국 방콕의 카셋삿대학교에서 열린 '납북 문제와 국제사회의 반응' 주제 심포지엄에서 "납북자 송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최고(paramount) 과제 중 하나"라며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실과 정의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은)를 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천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납북 문제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거론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기구에서 논의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라고 강조함.
- 그는 또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을 추진했지만, 특정 국가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그가 언급한 특정 국가는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됨.

■ **탈북단체, 北에 소형PC '라즈베리 파이' 밀반입시켜 변화유도(연합뉴스)**

- 탈북자 단체가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소형컴퓨터)'를 보내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17일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라즈베리 파이를 조만간 반입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그는 "북한 주민들이 예전에는 소형 라디오를 듣고 한국가요를 흥얼거렸다면, 이제는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알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1. 17.

■ **北, 유엔 채택 인권결의에 "모든 대응 강구"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에 대해 17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가증되는 데 대응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함.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이번 결의가 "모략과 공모 결탁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 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에 대한 우려 등이 처음 담긴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조선 제재소동에 합세해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1. 15.

■ **주한공관장, 北인권 머리맞대…탈북민 증언도 들어(연합뉴스)**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9개 국가의 주한공관 인사가 모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가 열림.
- 외교부는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재로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 주한공관장 초청 북한인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인권문제와 전반적 핵·미사일 문제, 안보 문제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함. 이 당국자는 이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한반도발

(發) 메시지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2016. 11. 16.

■ **윤병세,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접견…"긴밀 협력 기대"(연합뉴스)**

-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역대 가장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됐다"면서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방한이 앞으로 인권 관련한 당신의 귀중한 노력과 일련의 협력에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북한 인권 이슈 등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방문이 보람 있고 생산적이길 바란다"고 덧붙임.
-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에 이번 방문에서 정부 당국자는 물론 시민사회, 탈북민 등을 만나 대화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이 어떤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 **외교부,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환영(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
- 외교부는 조준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결의는 역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1. 12.

■ **"北억류 미국인 웜비어씨, 7개월 넘게 영사 접견 안돼"(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씨의 영사 접견을 7개월 넘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RFA에 "북한 당국이 지난 3월 2일 이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과의 영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죄에 비해 부당하게 가혹한 선고를 받은 웜비어씨가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웜비어씨에 대한 처우 등을 보면 북한은 공식 주장과 달리 미국 시민을 체포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함.

2016. 11. 13.

■ **탈북민 3만 명 돌파…올해 지난해 대비 18% 증가(연합뉴스)**

- 통일부는 지난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입국하면서 이날 기준 탈북민 숫자가 3만5명이 됐다고 13일 밝힘.
-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1962년6월 최초 귀순에 이어 2006년2월 1만 명, 2010년11월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6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섬
- 이처럼 올해 들어 탈북민 입국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으로 풀이되며,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이 급증한 것이 특징임.

5. 대북지원

2016. 11. 14.

■ **WFP, 3분기 대북 분배 감시 226차례…올 들어 최저(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서 총 226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고, 국제 요원 가운데는 1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3분기 중 북한 9개 도 41개 시, 군에서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고, 한 달에 70여 차례, 적어도 2번 꼴로 활동을 진행함.
- 이는 앞서 지난 2분기 총 273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인 것에 비해 17% 가량 감소한 것이고,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70개 시, 군에서 총 307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한 것과 북한 내 분배 감시 국제 요원 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6. 11. 15.

■ **러시아, 北 수해 주민에 식량·디젤유 870t 전달(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디젤유 등의 구호물자 870t을 15일(현지시간) 전달한다고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밝힘.
- 비상사태부 공보실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에 "며칠 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으로 170t 이상의 식량과 700t 이상의 디젤유가 운송됐다"면서 "오늘 전달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구호 물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나진으로 철로를 통해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사태부는 북한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함.